

# KNOCK

## 송대극회 제15회 신입생 환영공연



작 : 줄스파이퍼 / 기획 : 정현용 / 연출 : 이범준

■일시 : '91년 3월 7(토6), 8(토2·6), 9(토1·5)

■장소 : 송실대학교 대학극장

■추천 : 송실대학교 송대극회

■후원 : 송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 ◇모시는 글



극회장  
**이범준** (불문, 89)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해서 뻗치고 있었다.  
 최고이고자 했고 최선이고자 했으나 기대에 따른 실망과 좌절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들 자기자신을 비웃으며 회의에 찬 눈물도 머금어야 했다.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두려움을 겪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 나타낸다는 것, 우리에게는 숙명처럼 다가왔으나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여기에서 난 하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러한 모든 부족함과 결핍들을 주어모아 관객 여러분께 선사코자 한다.  
 모두에게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띄우며,

# ◇알리는 말씀

## 당신을 <송대극회>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송대 극회는 송실의 역사와 더불어 장구한 세월동안 대학 문화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대학 연극의 새기수로서 동참할 뜻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언제든지 저희 송대극회의 문을 두드리주세요.

- 모집분야 : 기획, 무대장치, 연기, 연출
- 모집기간 : 1991년 1학기동안
- 장 소 : 제2공학관 2층 동아리실
- 자격조건 : 91학년도 신입생 남·녀
- 차기공연일정 : 1991년 5월말 봄 정기공연 예정



**DEUTSCHER HOF**  
☎ 822-5514

후문 송실대 정문

국수의 명문



송실대정문 TEL. 814-3943

**송실안경원**



귀하의 무관심이 눈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TEL. 812-5666  
※ 목욕탕 건물 1층

송실대정문

cafe **LAURA**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TEL. 815-3784

후문 송실대정문



**성보컴퓨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TEL. 821-8017

송실대정문

당구의 묘미를 즐기시고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상아당구장**

☎ 815-0563

모든 사진은



**23분 칼라현상소**

TEL: 813-2708 (송실대무역학과중)

상업은행

**김원식 헤어리더**



언제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송실대정문



◇ 기획의 변



정현웅 (법. 87)

우리들의 세대는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  
 일상적인 틀안에서 안주하기를 거부했던 우리들의 몸짓은 방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젊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마저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지금, 난 한없이 우울해지면서도 가슴속부터 뜨겁게 용솨  
 움치는, 알 수 없는 마음으로 또다른 방향을 준비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런지.....  
 함께 작업을 해온 연출과 캐스트에게 눈물어린 박수를 보내며 많  
 은 도움을 주었던 후배와 여러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의 시작에 들어간 송실인, 관객 여러분과 함께  
 서로 어깨를 기대는 채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만날수 있으면 좋겠  
 다.

◇ STAFF



무대감독  
이영민 (물리84)



기획보  
이종운 (법89)



무대미술  
이준석 (기계85)



진행  
안상준 (기계85)



음향  
권승혜 (불문88)



조명  
권태수 (경영87)



홍보  
남재현 (철학88)



소품  
정석용 (경영90)



분장  
판숙경 (사사89)

백/마/당/구/장

최선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송실대정문

자매분식

TEL: 816-9835

지하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학사주점

지하 • 옛촌

송실대정문

TEL: 813-6235

경양식 & 호프전문점

베에로

지하

송실대 정문

☎ 812-5768



### ◇ 연출의 변



이 범준 (불문, 89)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다.  
 이는 내 욕구의 발산이고자 했기 때문이리라.  
 또 한번의 실현을 위하여 몸부림치고자 했기 때문이리라.  
 말보다는 몸짓으로 서로에게 다짐하며  
 전체를 일구어 나가고자 했다.  
 그에 따른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며 지금에 이르렀다.  
 무엇이 두려우랴, 평가받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보여줄 뿐이다.  
 나의 또 한번의 실수를 .....

### ◇ CAST



코 혼  
양 현준 (법90)

둘러!  
 이걸 나라고 말해요.  
 현준이라고.  
 더이상 서서하게 굴지마!  
 그래요.  
 나는 서서하게  
 굴었습니다??!



에 이 브  
남 재우 (전자90)

생애 있어서 우린  
 너무 늦게도 너무늦게도  
 알게 아니라  
 바로 그 중간을 보는지요.  
 영화나 T·V가 연극으로부터  
 뺏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가 지닌  
 인간성이다.



잔 · 다르크  
홍 은영 (법89)

난 내발에 신발을  
 신겨야만 나를  
 알아볼수 있는 왕자가  
 싫었어요.  
 똑! 똑!  
 저 누구요?  
 잔 · 다르크입니다.



햄멧 · 와이즈맨  
이 기택 (사사90)

피고는 자기 자신이  
 청천벽일하에 무고하다는  
 죄를 인정했소.  
  
 어머니는  
 내 망나니춤을  
 보고만 계셨다.



목 소 리 1  
이 경희 (산공89)

당신은  
 구멍이 어딴지  
 알고싶은 거지?  
  
 내 존재의 이유는  
 언제나  
 구멍 뚫린  
 유기체였다.



목 소 리 2  
이 종윤 (법89)

우리  
 간과 무엇을 하려는거지?  
  
 난  
 악몽에 잠긴 채  
 미쳐가고  
 있었다.

젊은이의 식사처  
**그린하우스**  
 종합분식 · 신속배달  
**밥** 숭대 TEL: 816-5196

공연을 축하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송실대학교 안경부  
**실로암안경원**  
 TEL: 816-7875

언희서안비  
 안의 전문  
**두메골**  
 송실인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 TEL: 813-3655

공연을 축하합니다.  
 송실대학교  
**구내서점**



## ◇ 작가 및 작품연구

줄스 파이퍼는 극작가이기보다 만화가로서 출발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외부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화제를 뿌리게 된 원인은 반베트남전 행동이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정 에 흥미를 갖고 반전운동에 뛰어들었다. 와싱턴 평화 시위에서의 연설, 베트남 전쟁 항의문 낭독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만화를 통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순례에 앞장섰다.

이같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정치 참여에서 습득한 산 이론과 경험은 만화뿐만 아니라 그가 1960년대에 쓴 3편의 극작<작은 살인(Little Murders)>, <신의 은총(God Bless)> 그리고 <백악관 살인사건(The White House Munder Case)>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파이퍼는 비정한 현대 기계 문명 사회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상을 풍자적인 필치를 통해 심층적으로 포착해보고자 하는 특이한 극작가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의 작품속에는 풍자성과 가시 돌린 유우버와 비전이 있다. 그의 극중 인물들이 우리에게 실재감을 주는 까닭도 단순한 일상적 심리의 묘사나 생소한 관념의 나열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물질과 폭력과 기계의 거센 과도속에서 '땀다 가라앉았다'하는 현대인의 초월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파이퍼는 현대를 상실의 시대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현대인을 내적 고향의 상실자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와 개인간의 조화가 흔들리고 균형이 깨져갈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인간적 애정의고갈, 다시 말해서 인간적 사고와 정신의 정돈, 그리고 희망의 강탈에 대해 그는 비판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Knock Knock> 속에서는 사회의 병폐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넘어서 부조리의 도가니속에서 삶을 희망으로 찾으려는 현대인의 몸부림과 절규를 볼 수 있다. 우리는 극작가 파이퍼의 다음과 같은 말들에서 그러한 암시를 받는다. <Knock Knock>를 보고 우리의 일생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가지고서, 필요하다면 희망을 재발견하면서 살아 가야 한다."

즉, 부조리가 팽배한 사회로부터 이탈, 자신들만의 고집스러운 삶을 이끌어 가려 하나 그러한 그들에게조차 갖가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부과해준다. 즉 사회의 타락과 모순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여 피할 것만이 아니라 직접 그 도가니에 뛰어들어 맞부딪히며 발전적 의미에서의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 작품은 겉으로 대하기에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재미난 작품으로서 가볍게 받아넘기기가 쉬울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에서 밝힌바 진지하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호하고 모순된 대사들의 남발, 불합리한 인간관계, 생활과 생활공간과의 부조화, 극전개의 비논리적 구성 이러한 부조리 극적 요소와 꿈과 같은 환상적인 극의 분위기를 통해 두 평범한 사람들 즉 코혼과 에이브의 심리에 충동질을 가하여 그들의 욕구와 갈등등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노출시키게끔 하여 내면의 심리를 파악하게끔 했다.

## ◇ 입을거리

## 부조리극(Theatre of Absurd)에 대하여

부조리 극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구미 연극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연극운동이다. 2차 대전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Samuel Beckett외에 Eugene Ionesco, Arthur Adamow, Jean Genet 같은 작가들에 의해 무대 위에 올려 졌다. Beckett는 아일랜드, Adanow는 러시아, Ionesco는 루마니아에서 와서 빠리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Genet은 프랑스인으로, 부조리 극은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후의 환멸로 부터 그리고 안정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부르조아 가치관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부조리 극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무의미함과 그로 말미암은 공포를 그리고 있는데, 즐거리의 발전이나 심리적 진전 같은 것은 없고 단지 부조리한 인간 존재의 모습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이다. 따라서 등장 인물들은 의지도 없으며 그저 반사적인 행동으로 반응을 보일 뿐이며 대화 역시 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어귀의 나열식 전개이다.

부조리 연극은 Jean Paul Sartre와 Albert Camus를 주축으로 하는 문학적 배경과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Nietzsche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후 이 우주공간에는 신적 질서나 자연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다만 부조리한 상황과 부조리한 인간 존재가 서로 대면한 가운데 이 부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의 인간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자기 혼자만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에 따라 행동하면 그 뿐인 것이다.

실존주의는 부조리한 세계 속에 인간이 실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 불안, 고뇌를 느끼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숙명적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성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부조리로 살아가는 것이 부조리의 인간이며, 그 대표적 부조리 영웅은 바로 시지프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지프스는 부조리한 상황에 타협하는 대신 주어진 임무, 즉 산 꼭대기까지 무거운 바위를 굴러 올려야 하는 힘든 작업을 되풀이한다. 꼭대기에 올라가기가 무섭게 돌은 다시 굴러 내려간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작업, 즉 인생의 무의미를 자각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끊임없이 반복하는 바로 이런 성실한 인생의 태도만이 인생의 무의미성을 의미성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Camus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후배 작가들, 즉 Beckett, Genet, Ionesco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첫째가, 인간 존재의 부조리에 질서를 자제오게 하는 일보다 부조리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주제를 혼돈된 연극 형식 속에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 ◇ 연습일지

- 12월 00일 Christmas가 하루 지난 첫 Reading.  
휘몰아치는 찬바람을 헤치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침.
- 12월 00일 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Gulf전 시작.  
기획형 밥먹을 때는 다국적군의 웅단폭격.
- 1월 00일 신정휴가가 끝나고 다시 모인 용사들과 고양이 한 마리  
뜻을 알 수 없는 대사로 모두 헤메고 있음.
- 1월 00일 전혀 예상 못한 Casting. 역시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무리 여자가 한 명이라지만 여주인공을 잔에게 맡기다니.
- 1월 00일 무대위에서 책만 읽는 Cast들 데리고 Blocking시작  
연출의 얼굴이 마구마구 이그러짐. 하지만 도두 열의로 가득차 있음.
- 1월 00일 매일 매일 라면으로 때우는 허망한 식사.  
Cast 曰 "배고파요, 기획형!!", 기획형 曰 "나도 배고파."
- 1월 00일 갑자기 관객석에 연습 보러 온 선배형들 등장.  
그런데, Cast는 가만히 서있고 연출형만 일장훈시.  
선배형들 내려가며 曰 "어떻게 연출만 말해!?"
- 1월 00일 우리들의 사이코 와이즈맨의 탄신일.  
애인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 맛이 가게 했음.  
다음날 얼굴에 반창고가 두어개 붙어 있었음.
- 2월 00일 단합을 위해 서해로 M.T.가기로 한 날. 갑자기 행로가 바뀜.  
구두 신고 축구공 들고 치악산에 오른 우리의 이 봉창 연출형 <실화임>
- 2월 00일 연출형 曰 "모두 집에 가서 대본 보냐?"  
기죽은 에이브 曰 미안한 목소리로 "독서실에 있는 사람이 집이 어딴어요?"
- 2월 00일 <0막 0장 호흔이 잔을 드는 장면>  
비틀비틀하는 코흔을 보다 못한 연출형 曰 "이렇게 드는거, 공... 무겁긴무겁군."  
잔은 제 탓은 안하고 튼튼한 코흔만 탓함.
- 2월 00일 무대 Setting에 들어감. 베네랑 선배님들 덕분에 몇시간 안에 작업 완성.  
상가집 갔다온 코흔만 밤새 뭘 했는지 눈이 풀려 있음.
- 2월 00일 포스터 완성과 무대 도색.  
무대 미술을 맡은 Staff형 曰 "이번에 무대미술에 혁명을 일으키겠어??"
- 3월 00일 내일 모레가 공연일로 나가음.  
모두들 상기된 얼굴로 뛰어다니며 마무리 작업에 매달리는 열정들에 벌써 봄이 한층 다가온 것 같음.

## 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	명	기획	연출
	1921년 6 : 13	연동회소인극 "세계평화 나팔제중의 알리" "대미국 노래의 밤"			
	1923년 7 : 7, 21	전원극 "우리의 영리" "농예물" "심년 후" "거세인간" 방정철연희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교학생후원회 주관			
1	1955년 11 :	"세궁으로 돌아오다" 황정석학 이반기획	이반	전진호	
2	1960년 10 : 28	"Our Town" by Thore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희자들" 이오네스코작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황후의 생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1970년 10 : 28, 29	"황후의 생일" 사무영·베케트작		김장기	
7	1971년 5 : 26, 27, 28, 31	"The Bind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신년특 상화" 손조영작 "달에대항해 회해시" 안돈·백종우 "황금단기"(로마극) 유라우리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영·베케트작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홍근배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카리컬의 그림자" 칸·오케이시작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핀터작		한영재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 워렌하트작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밤" H. 핀터작 "기도"(소극장) F. 아라벨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절리의 사랑들"(전5회) A. 카피작		정종화	
13	1975년 6 : 9, 10, 12, 13	"세물터의 신화" "도스모베르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종수	안동순	
14	1975년 10 : 29, 30, 31	"비터번과 알파벳" Max Frish작	김기영	안동순	
15	1976년 6 : 1, 2, 3	"인더부" 장·장로드·번·이빨리작	김기영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엔" 장·장로드·번·이빨리작		김영덕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래리작	방정철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래리작	방정철	김영덕	
19	1978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작	방정철	김영덕	

회	공연일시	작품	명	기획	연출
19	1978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작	방정철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화연극회 참가) 피터·래리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 : 18, 19	"한상 2979"	김영덕작	정재호	이봉국
22	1979년 9 : 28, 10 : 2	"후 분"	오해석작	이성일	황성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일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프라이먼 클라크작	임세연	박달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워렌하트작	이종규	황성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영종작	전희진	황성순
26	1982년 9 : 12, 13	"카리칼라" A. 카피작	송대용	지 숙	
27	1982년 10 : 7, 8	"레오우 엑스" M. 크리스토퍼작	전희진	황성순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의 결혼" F. 워렌하트작	전희진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브레버" John Bowen작	이원우	오정영	
30	1984년 5 : 24, 25, 26	"도나니"(The crucible) A. Miller 작	이종규	양세연	오세환
31	1984년 10 : 11, 12, 13	"번트스" John stoltzenberg작	차세훈	이종길	
32	1985년 5 : 9, 10, 11	"인간군" Maxim Gorky	김상현	이종길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만나 버레스키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 : 4, 5, 6	"에우우스""EQUUS" 피터·래리작	하성우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헨스" F. 아라벨작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전희진	이종길	오정영
37	1987년 9 : 10, 11, 12	"오 세" A. Camus	오정영	박경근	
38	1988년 6 : 2, 3, 4	"세번은 열세 세번은 열세" 이·어릴작	이종길	오정영	
39	1988년 10 : 6, 7, 8	"안내자구, 못내자구" Darin Fu작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 : 25, 26, 27	"눈 내"	손조영작	전승범	안진우
41	1990년 11 : 11, 12, 13, 14	"대안자의 오인" T. S. Eliot작	고봉인	이 반	
42	1990년 5 : 21, 22, 23	"향기, 오해" 장·카누이작	전태수	이종길	
43	1990년 8 : 30, 9 : 1, 2	"후회안대기" 황정석연	김승민	이성민	

### ▶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

회	공연일시	작품	명	기획	연출
1	1975년 3 : 10, 11, 12	"타마비 춤" W. Aronson작		김종수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버인"	이강배작		김득남
3	1977년 3 : 16, 17, 18	"줄 밧"	유대성작	전진호	안동순
4	1979년 3 : 29, 30	"엔"	이강배작	한 봉	정재호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s작	이성희	오세환	
6	1982년 3 : 24, 25	"침공당 귀는 달나라 귀"	김용래작	최시영	이종길
7	1983년 4 : 16, 17	"올해의대리"	피터 래리작	전희진	홍근배

회	공연일시	작품	명	기획	연출
8	1984년 3 : 8, 9	"세번의 소공녀" N. Huland작	차세훈	김만보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s작	이성민	하승민	
10	1986 3 : 12, 13, 14	"인형의 집"	백학·김연희	이성일	황성순
11	1987년 3 : 12, 13, 14	"타라온 순"	J. P. 사르프작	백은환	박경근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희작	전승범	황금상
13	1989년 3 : 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전통곡 A. Camus	홍근배	박경근	
	3 : 28, 9, 10	주용순환기 Ballo Strauß	안상준	박모리	





# “6년동안 화장하지 않은 이야기”

입사 6년만에 시작가는 달, 처음으로 화장한 김영순양.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여인의 본능이지만, 분가루 하나가 반도체 품질에 치명적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화장을 미뤘을 그녀. 휴먼테크의 고졸직에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아름답게 스며 있습니다.

## 에러율 0에 도전하는 휴먼테크 — 바로 최고의 품질을 향한 노력입니다.



### ■ 토털품질관리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설계·부품개발·공정관리·생산·출하 후의 A/S 자료분석에 이르는 전단계를 하나로 이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라인 스톱제도

생산현장에서 문제발생시 각 개인이 스톱 버튼을 눌러 작업을 중단시키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 품질개선체제 구축, 생산량 중심에서 품질제일주의로 사고를 전환하며, 작업자 스스로 품질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새벽시장과 야시장

이른 새벽과 밤에 협력회사의 대표와 삼성전자의 해당분야 책임자들이 모여서 불량품을 전치판매하는 독특한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다음 장년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내는 적극적인 품질향상의 노력 — 이것이 바로 휴먼테크의 품질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